



세계교육선교대회가 풀러신학교와 나성영락교회에서 3일간 개최됐다.



OC장로협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은혜로 사는 청지기 되자

OC장로협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 열려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회장, 이사장 이취임감사예배가 지난 2월 4일 주일 오후 4시에 참빛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강신욱 장로의 사회로 시작돼 김경섭 목사(OC영락교회)가 기도하고 노장수 목사(남가주사랑교회)가 “은혜로 사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자부심을 갖고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권면했다.

이어 전임회장 엄재선 장로와 전임이사장 신승현 장로가 이임하고 신임회장 한창훈 장로와 신임이사

장 김도영 장로가 취임했다. 한 회장은 “감사함으로 직책을 받아 교육과 친교,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서 목사(OC교회회장), 남삼국 목사(OC목사회장) 등 OC 지역 교계 단체장들과 함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출마한 영 김 후보가 축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도 있었다.

정은향 목사(OC교회)가 축사(참빛장로교회)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으며 예배 후 식사 기도는 장혜숙 목사(OC여성목사회장)가 했다.

전 세계 향해 나아갈 교육 선교사를 찾아라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 남가주에서 열려

전 세계로 나아가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할 교육선교사를 동원하기 위한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가 2월 1일부터 3일까지 풀러신학교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풀러신학교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정원이 300명이었으나 380여 명이 등록하면서 교육 선교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의 연합체인 PAUA(Pan Asia Africa & Ame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범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대학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소속 학교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 선교 현장의 뜨거운 간증을 나누며 참석자들에게 도전을 던졌다. 프놈펜 국제예술대학교 민성기 이사장,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교 구건희 총장, 우간다 쿠미대학교 이영길 총장, 몽골 국제올란바타르대학교 남기영 총장, 탄자니아 UAUT 이진섭 설립자, 몽골국제대학교 권오문 총장, 파키스탄 국제대학교 김경연 총장, 키르키스탄국제대학교 유민 총장, 볼리비아 우세볼대학교 정수현 총장, 가

나국제대학교 임철순 이사장, 미얀마국제대학교 백성기 설립총장, 몽골 후레정보통신대학교 고재형 교수 등 현장 사역자들의 간증에는 큰 박수가 쏟아졌다.

이 외에도 손봉호 이사장(PAUA), 임현수 목사(큰빛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박현성 목사(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정인수 목사(CCC 국제부총재),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김창환 원장(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 최복이 대표(본월드미션) 등이 참석해 메시지를 전했다.

하루 종일 선교 보고와 간증,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저녁에는 나성영락교회로 이동해 선교 대회에 참석했다.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이 대회는 남가주 지역 평신도들이 참석해 교육선교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PAUA에는 십여 개 이상의 학교가 소속돼 있다. 모두 한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선교 목적의 대학들이다. 선교지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일 뿐 아니라 일부 학교는 현지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으로 성장해 있다. PAUA는 이 학교들을 네트워킹하면서 교류와 연합을 도모하고 각종 교육 자원들을 회원 학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학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연구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매년 1차례 학교의 대표자들, 교수들이 모여 교육 선교의 방향과 미래, 전략을 토론하는 대회를 열고 있다.

PAUA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 전문인들이나 학위 소지자, 시니어를 효율적 선교자원으로 동원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전공 교수로 지원하려면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하지만, 영어 강사나 한국어 강사는 학사 학위만 있어도 된다. 행정 직원, 상담교사, 의무교사, IT 전문가와 도서관 담당자, 대학 부설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일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들. 사진 가장 오른쪽은 씨니 김 목사(LA씨티교회)

한국 칼빈대, 미국 신학교들과 MOU

한국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칼빈대학교 관계자들이 미주를 방문해 캘리포니아 프라비덴스 크리스천 칼리지, 캔사스 센트럴침례신학교, 텍사스 그레이스신학교와 MOU를

맺었다. 이번 방문에는 김진웅 이사장, 김근수 총장 대행, 한기관 국제협력처장, 김태성 대외협력처장, 김삼열 교수 등이 동행했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남가주 늘사랑교회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남가주 늘사랑교회

“우리 소망, 하나님 나라”
 “말씀사경회 및 창립예배”

부흥회
 첫째날 23일(금) 저녁 7시 둘째날 24일(토) 저녁 7시
 하나님 나라와 복음 하나님 나라와 성령
 셋째날 25일(주일) 오전 10:45
 하나님 나라와 교회

창립예배
 2월 25일 주일 오후 4:00
 주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강사: 정승통목사
 약력: 현 대전늘사랑교회 담임
 현 KOSTA강사
 전 침미준 대표
 한국선교연구원선정
 한국의 건강한 10대 교회

담임목사: 안상희
 현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교수
 전 온누리침례교회담임

남가주늘사랑교회는 북미주 최대의 개신교단인 미남침례회 (Southern Baptist Convention) 소속입니다.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 T. 714) 525-0191, 714) 482-5466 | EBCSoCal@gmail.com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예배회복운동 '나이스크'의 2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LA평화교회에서 개최됐다.

“신령과 진정” 예배 회복 위해 달려온 25년

나이스크 25주년 감사예배, LA에서 개최

예배회복운동 나이스크(Nyskc World Mission)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1993년부터 교회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닌 예배의 회복임을 주창하며 최고선 대표회장이 시작한 이 운동은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지난 25년 동안 미국 전역을 넘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세계로 확대됐다.

25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지난 2월 1일 오후 7시 LA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은목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돼 류경열 목사(기획실장)가 기도하고 박재준 목사(대외협력실장)가 성경 요한복음 4장 20-24절 말씀을 봉독했다. 이어 GTS(Goshen Theological Seminary) 교수들이 특송을 하고

최고선 대표회장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회장은 “예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짐 없이 드리는 신앙적 헌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요즘은 교회들이 예배보다는 사역으로 초점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미 동부에 위치한 나이스크 본부의 사역자들이 헌금송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란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어 최학량 목사(서부지역 자문위원), 윤구현 목사(한국 광주본부장), 박재신 목사(전주본부장), 송문규 목사(서남아시아본부장), 윤사무엘 목사(회복의신학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난 25년간 달려온 최고선 대표회장과 나이스크인들의 헌신을 칭찬하면서

예배의 회복이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가져온 놀라운 부흥을 간증했다. 최학량 목사는 “그동안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 달려온, 불타는 사명감으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전진하라”고 했다. 윤구현 목사는 “예배 회복을 목회의 본질로 삼은 이후부터 예배가 달라지고, 성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면서 “이 운동에 앞장서 온 선배님들이 존경스럽다”고 했다. 송 목사는 “선교지는 더 예배 중심적이어야 한다”면서 “나이스크 운동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전 세계에 소망을 전하는 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모든 예배는 이병완 목사(실무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나이스크는 오는 2018년 6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성령이 오셨네”를 주제로 나이스크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말씀을 전하는 최고선 대표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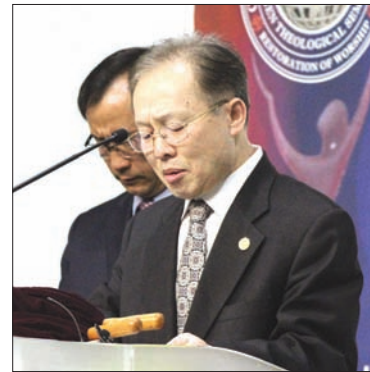
예배를 인도하는 김은목 사무총장



대표기도하는 류경열 기획실장



성경봉독하는 박재준 대외협력실장



축도하는 이병완 실무회장



GTS 교수들이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을 특송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

일시 **2018년 2월 11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기쁜우리교회 본당**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쁜우리교회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임직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귀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초청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우리교회 믿음의 가족 일동

임직자 및 추대자 명단
사무장 남형웅, 이병욱, 이효수, 최영무, 민홍식, 전영환, 송의용, 장정환, 정지일
사무안수집사 권영욱, 김경선, 김태완, 이정원, 문창룡, 민옥인, 김영희
사무권사 김경화, 김성희, 김 숙, 김정숙, 김정애, 김희영, 남선정, 문은희, 배인실, 안선희, 여은경, 이순화, 이연자, 이줄리, 장미경, 조정은, 최혜숙 (가나다순)
추대장로 강경수, 강성호, 박병성, 박상천, 심재인, 장 원, 장정수, 주성기, 최효용, 홍문표 (가나다순)
추대권사 이명자

오시는길 주차장
 UCC 본당 옆에 있는 주차장에는 장애우와 노약자 및 새가족 등 주차 허가를 받은 분들만 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Colorado 길 건너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 안내 담당자들의 안내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전화 (818) 662-0400 **팩스** (818) 662-0800
웹사이트 www.joyfulccc.org

사서함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이메일 joyfulccc.office@gmail.com



기독일보 14주년 감사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교회와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독언론

본지 14주년 맞이해 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이사 위촉식

본지 기독일보가 창간 14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리고 후원이사를 위촉했다.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LA 한인타운의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드린 예배에는 100여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기독일보의 사역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했다.

예배는 박성호 목사(ANC 은누리교회 총괄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개회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른 후, 정우성 목사(편집고문, 남가주광명교회)가 대표기도를 했다. 정 목사는 “기독일보가 절망에 빠진 이들이 소망을 얻는 신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섬김과 사랑으로 열매맺기를 간구한다”며 기도했다. 이어 김용식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가 예배소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고 목사장로 부부찬양단이 <그때 그 무리들이>와 <구원열차>를 특송했다.

설교는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가 전했다. 김 목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언론”이라는 설교에서 “복음이 어떻게 문화의 옷을 입고 잘 전달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는 글을 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교회와 기독언론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다. 교회와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축사는 이서 목사(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샘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남상국 목사(오렌지카운티목사회 회장),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

표)가 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싸움이다. 기독일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당부했다. 신 목사는 “지난 14년간 비와 바람, 태풍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기독일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더욱 유익한 문서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권면은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박기호 교수(편집고문, 풀러신학교), 이호우 목사(해오한인장로회 서남노회장)가 했다. 이 총장은 “말길과 글길을 통해 세상과 복음으로 소통하며, 미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라”고 권면했다. 박 교수는 “14년 전 창간예배에서 제가 설교하며 ‘정론을 전하되 긍정적이고 복된 소식을 더 많이 전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었다”고 칭찬했다.

이 목사는 “기독일보는 문서 선교의 사명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감당하는 귀한 신문”이라면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안 해야 할 말을 안 하며 중도를 잘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사회를 맡은 박성호 목사도 예배 중 “기독일보는 차별화된 신문”이라며 “단순히 읽혀지는 신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정다감하게 읽어주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주장신대 강미영 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헌금특송으로 불렀고 안선신 목사(남가주여성목

사회 회장)가 봉헌기도를 했다. 폐회 찬송으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다 함께 부른 후 이범중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2부 순서로 진행된 후원이사 위촉식에서는 본지의 지난 14년 사역과 비전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했고 이사장 임덕순 장로가 환영사를 전했다.

임덕순 이사장은 “지난 14년 동안 기독일보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감사예배와 후원이사 위촉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기독일보가 정의와 진리의 복음만 선포하도록 계속 후원하고 지켜보며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사 위촉식을 한 후, 후원이사 엘리야 김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가 대표 인사를 했다. 이인규 사장이 광고한 후, 안기정 목사가 식사를 위해 기도함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번에 후원이사에는 김경진 목사, 김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 엘리야 김 목사 등 목회자들과 스티브 정 대표(블리스여행사), 에드워드 구 대표(캘리포니아 부동산), 육종권 대표(오페라 하우스), 제이콥 박 대표(삼성통운), 조시영 대표(이스트베일 플라자), 존 김 회장(비즈포스트그룹), 지길준 대표(LA오트), 차영준 대표(LOLC), 찰스 김 부사장(비즈포스트그룹), 최철영 대표(LA고려통운) 등 평신도 기독사업가들이 위촉됐다.

김준형 기자



감사예배 주요 식순자들과 임직자들

나성순복음교회 창립 44주년 맞이해

감사예배에서 직분자 세위

나성순복음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해 지난 2월 2일 금요일 오후 감사예배를 드리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15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예배에서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가 설교했으며 유건형 목사(순복음북미총회 OC지방회장), 이상호 목사(리버사이드주님의기쁨교회)가 축사와 권면을 전했다.



갈릴리온교회에서 김인기 목사 초청 부흥집회가 열렸다.

“이 복음 나누지 않을 수 없어요”

갈릴리온교회에서 김인기 목사 초청 부흥회

갈릴리온교회(한천영 목사)에서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올랜도비전교회 김인기 목사(가정교회 사역원 미주대표)를 초청해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해 불신자 전도에 적극 나선 갈릴리온교회는 이번 집회를 <VIP와 함께 하는 부흥집회 - 나눌 수밖에 없는 비밀>이란 주제 아래 열었다.

이번 집회에서 김 목사는 4차례

다. 임직 예식은 임현철 목사(LAZ 방회장)가 인도했고 축도는 이영규 목사(증경총회장)가 했다.

진 목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행19:17-2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을 붙들며 부흥을 체험하고 증거하자”고 강조했다.

의 집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에 관해 설명했다. 김 목사는 집회 내내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동역자라는 마음가짐, 은혜에 빛진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기를 당부했다.

갈릴리온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며 세계선교를 꿈꾸는 건 강한 가정교회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의) 323-735-6412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방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저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52〉

중동 땅에 교회개척을 위한 교회 모임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의 국제이사회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한국 H 교회에서 열렸다. 그 모임에서는 참으로 가슴 벅찬 결정들을 했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는 결의를 했다. 참여한 교회 대표 목사들과 장로들이 참 순수했다. 주님의 지상대 명령, 선교의 사명 앞에서 모두가 하나되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우리 선교단체는 미력이나마 힘을 모으고 이슬람권의 다국적 선교사들이 사역 파트너가 되어서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훈련하고 보호하는 난민교회의 개척, 현지인교회의 개척 등의 비전을 세우고 개척선교사로 헌신할 27가정을 세웠다.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이 세울 교회를 지원하면서 일선 장기선교사들과 우리 선교회와 개척교회 지도자들과의 영적 네트워크를 결의하면서 그 현장은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다.

물론 이런 목적의 영적 네트워크가 이곳 저곳에서 활발하게 열려지고 있다. 점점 후방의 지교회들 중에 선교단체와의 교제를 통해 선교 불모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인 열방 교회 개척의 꿈을 갖고 함께 뛰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가정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교인이 약 20여 명인데 1년에 한 번을 전교인 단기 선교를 떠난다. 목사님과 교우들 가족이 짝게는 3주, 길게는 약 한 달 간 기도도 준비하여 온 교회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오는 것이다. 그 다음해에 또 그곳을 재방문하고 3년차에 또 방문하여 현지인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까지 그 땅을 품고 사역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가정교회의 강점 아닐까? 교인 수가 적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다. 그들의 꿈이 열방 땅을 향하기에 그 교회는 진실로 큰 교회라 할 수 있다.

어떤 교회들은 청년이 수백명씩 모이는 것을 자랑한다. 그런데 내면은 열방을 향하는 젊은이가 하나도 배출되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 모였다가 그냥 흩어져 버린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주님의 선포가 무색하기 그지없다.

교회들의 선교는 더 강해져야 하고, 선교지를 향한 성도들의 발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 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오늘날 급히 이루어지고 있다.

목회가 무엇인가? 은사에 따라 다르다 말할 수 있으나 성도들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로 양육하는 것 아닐까? 주님의 지상대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 아닌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실행케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나친 선교가 있을까? 그것도 교회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필자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야성을 회복하여 열방을 품고 나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중 큰 사명이라 믿고 산다.

● 행복설계사 강태광 목사 칼럼

행복은 마음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다리가 불편한 어느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았습니다. 정도가 심해서 목발이 필요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여대생이 다니는 학교는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그 학교에는 가파른 계단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목발을 짚고 올라가고 내려가야 하는 그녀의 등하교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의 얼굴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늘 행복한 표정으로 사람과 상황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곁에서 함께 계단을 올라가던 과 여학생이 그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안쓰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애,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셔서 너의 그 짧은 한쪽 다리를 길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 장애인 여학생은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의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친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하다가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니?” 그 여학생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어릴 때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았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궁금한 점이 있다는 듯이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해 보일 수가 있지? 너 정말로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러자 그 여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렇지.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병든 것은 아니지 않니?”

그 여학생의 대답은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참으로 근사하고 멋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건강한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건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난해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무명의 사람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육신이 병들어, 건강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자라나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행복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행복은 결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라고 했습니다.

“덤으로 얻은 삶 간증하며 찬양”

남가주 샬롬교회에서 23일 박종호 장로 찬양집회

남가주 샬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를 초청하여 2월 23일(금) 저녁 7시 30분에 특별 찬양집회를 갖는다.

박종호 장로는 1985년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2002년 도미하여 뉴욕 메네스 음대에서 공부했고 현재는 한동대와 전주대에서 경배와 찬양학과 객원교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1986년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내가 영으로”를 불러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후 찬양 사역에 헌신하면서 1집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12개의 음반을 발표하였다. 그의 음악은 클래식과 팝을 넘나들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으며 특별히 복음성가 가수로는 최초로 잠실 체조 경기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에서 대형 콘서트를 열어 한국의 찬양 문화를 이끌어 왔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 각지를 다니며 콘서트를 열어 수익금으로 남몰래 수많은 선교사들의 건강 검진과 선교 사역을 지원해서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중 2016년 갑자기 간경화와 간암 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통해 간 이식을 받게 되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 지금은 회



박종호 장로의 최근 집회 모습

복 중에 있으며 다시 새롭게 허락하신 제 2의 삶을 다시 한 번 찬양으로 헌신하고 있다. 특별히 병중에 있을 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준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간암 투병 후 88파운드나 되는 살이 빠져 몰라보게 야윈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 더 깊어진 박종호 장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딸의 간을 이식 받아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딸을 보며 더 힘들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간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덤으로 얻은 삶”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영육간의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시: 2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남가주 샬롬교회 본당 주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전화: 310-787-1004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박종호 성가사 초청 특별 찬양 집회



“특별히 영육간의 고통받는 분들에게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18년 2월 23일(금)
- 시간 : 오후 7:30
- 장소 : 남가주 샬롬교회 본당



남가주 샬롬교회 (담임목사 : 김준식)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문의 : T.(310)787-1004
www.shalomch.org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부활신앙과 내세소망

요한복음 5:27-29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복음 5: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인자(The Son Of Man)됨을 인하여 다니엘 7장 13~14절의 예언대로 권세와 영광을 지닌 메시아이시며 그의 생애를 통하여 고난(눅18:31), 죽임당하심(마16:21), 부활(마19:9), 승천(행1:9~11), 재림(마24:44)에 대한 예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1. 부활의 정의

성경에서 부활의 의미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셨으니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영(靈)을 불어 넣으심으로 영육(靈肉)이 합성(合成)한 것이 사람(아담)입니다.

죽음이란 합성했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니 즉, 영이 육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다 흘리신 후 “다 이루었다”란 말씀을 남기시고 영혼이 떠나심으로 운명(요19:30)하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 15:20)

2. 부활의 종류

성경에 부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시적인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A. 일시적인 부활

요한복음 11장 43절~44절에서와 같이 죽었던 나사로가 일시적 부활로 다시 살아서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요12:2)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취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죽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마27:50~53)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B. 생명의 부활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로서 시간과 공간(時空間) 어떤 장벽(障壁)의 제약(制約)도 받지 않는 완전자유(完全自由, Freedom)의 신령(神靈)한 몸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53절에서는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 그 몸에 영이 들어가 생령이 되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제한적인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이라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결실했을 때 하늘나라에 가 있던 영을 예수님 재림시에 데리고 오셔서 생명부활로 다시 살게 되거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1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데 들리움(휴거, 携去)받는 동안에 신령한 몸 즉, 생명의 부활체와 같은 상태로 바뀌어진답니다.

이같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사망을 이긴 영원한 승리가 되고 영광스러운 영생복락

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C. 심판의 부활

본문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으니 심판의 부활은 분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는 그 시행 시기와 과정과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한 악인들의 부활이 있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심판받기 위한 부활, 곧 죄인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 있을 것으로 계시록 20장 6절~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부활 중에 생명의 부활이 가장 소망적인 것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원하는 자는 서둘러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영적 소망의 자기 믿음을 알차게 가꾸어가며 영적 성과를 위하여 구제, 봉사, 희생적 헌신으로 선교에 힘써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라 해도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과 진실로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희생도 헌신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겠지만 생각과 말과 애써 수고하는 행동의 목적은 결국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결과뿐일 것입니다. 그런즉 부활신앙의 확신은 곧 내세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사탄(귀신)이 있으니 반드시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니 또한 반드시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진실히 믿어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장하며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영끌어가면서 영적 체질 신앙으로 복음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힘쓰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또는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라.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원팔연 목사 부흥성회



전주바울교회 원팔연 원로목사

일시 2월 16일(금) 오후 7시 플러튼 영락교회 (담임 유익상 목사)
2월 17일(토) 오후 7시 갈보리선교교회 (담임 심상은 목사)
2월 18일(주일) 오전 1부 7시 30분 / 오전 2부 9시 30분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문의 OC목사회 부회장 김근수 목사 (323.620.6400)

오렌지카운티 한인목사회 회장 남상국 목사

기독교일보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WE ARE THE CHURCH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Sa-Rang Community Church Rev. Chang Soo Ro, Sr. Pastor

-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Tel: (714) 772-7777 ■ E-Mail: office@sarang.com
 - 교육관(킹덤드림센터/KDC): 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 563-2422
- www.sarang.com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20분
- 2부 오전 9시 20분
- 3부 오전 11시 20분
- 4부 (젊은이예배 Passion5) 오후 1시 40분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20분
 - 2부 오전 11시 20분
- 2부, 3부 시간에 드리지는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www.holywave.sarang.com
- 영어청년부(NEXT)도 함께 드립니다
 - 영어대학부: 오전 11시 20분(본당 은혜채플)

교회학교 주일 2, 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20분

매달 첫 토요일 G2G 비전예배: 오전 6시 20분 (이중 언어로 진행)

AWANA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체육관)

사랑부 발달장애우 학교: 주일 오전 9시 20분, 오전 11시 20분(112호)

기독교일보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미주비전교회



-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 T. (714) 821-9900
- www.visioncc.org

십자가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7000 용사를 세우는 교회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



이서 담임목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1부 : 오전 8:45
- 주일예배 2부 : 오전 11:00
- 유.초등부예배 : 오전 11:00
- 중.고등부예배 : 오전 11:00
- 영어(EM)예배 : 오전 9:00
-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기독교일보

창립14주년을 축하합니다!



은혜한인교회



은혜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racemi.com
TEL : 714) 446-1000, 1004, 6200, FAX : 714) 446-6207

은혜세계기도센터(365일 24시간 OPEN) TEL : 714) 446-1005
예배: 5:30am, 8:00pm, www.gracewpc.com

그레이스미션대학 (G.M.U. 신학교) TEL : 714) 525-0088
Miracle Center #305호 www.gm.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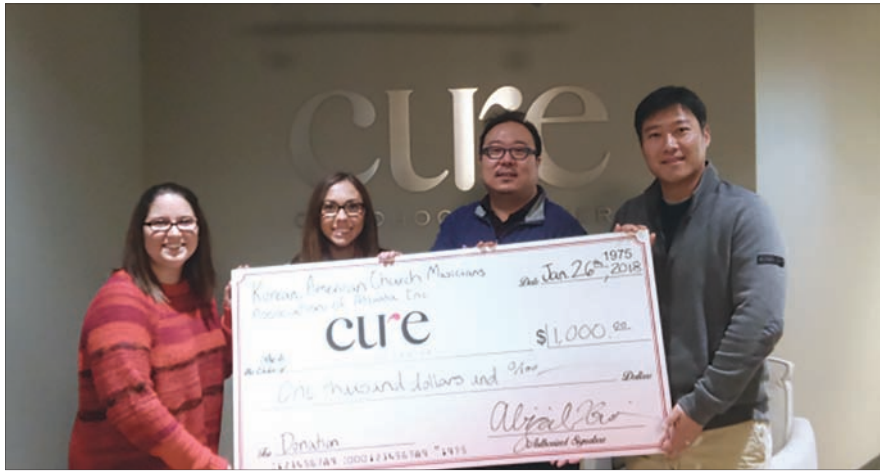
은혜기도원 TEL : 951) 277-1188
11985 Indian Truck Trail, Corona, CA 92883

은혜교회 예배안내

성인주일예배 (VC)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교육부 주일예배 (MC)	
영아~초등부	오전 9:20 / 오전 11:30
중·고등부 (EM/KM)	오전 9:20 / 오전 11:30
EM 대학부	오후 2:00
청년부 예배 (GWPC)	
목요 8pm(MC203) 금요 7:30pm(MC Cafe) 주일 2pm	
English Service 주일예배 (MC)	
Main Service 오전 9:20 / 오전 11:30	
GWPC 은혜세계기도센터	
(월~금)새벽 5:30, (토)새벽 6:00 / (월~토)오후 8:00	
수요 성도양육 과정	
양육과정	오후 8:00
금요예배 (VC)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EM 대학부	오후 7:30
중고등부 (EM/KM)	오후 8:00
농이교회의 주일예배 (C&B)	
	오전10:00(C&B) / 오전11:30(VC)
Jesus' Light (발달장애우주일예배) (MC)	

한기홍 담임목사 설교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10:00(주 일)
CHTV CH 18.7	오후 12:00(주 일)
CGNTV LA 지역	오후 02:30(월요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CHTV CH 56.9	오전 04:30(화요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 AM 1650	오전 05: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30, 5:30, 9:40
CTS 미국(DIRECTV) CH 2092	오전 10:20(수요일) 오후 08:00(수요일)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오전 10:00(목요일)
KCBS CHICAGO AM 668	오후 1:30, 5:30, 9:40
CH TV 18.88	오후 10:00(목요일)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미국(DIRECTV) CH 2092	오전 05:30(금요일)
CTS 한국(금)	오전 06:00(한국시간)
SCA FM	오전 00:00(토요일)
라디오 서울 1650	오전 08:00(토요일) 오전 00:00(토요일)



애틀랜타한인교회음악협회의 박재형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형록 부회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은 소아암 협회 재단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소아암협회에 한인 사랑 전달

애틀랜타교회음악협회 1000달러 기부

애틀랜타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박재형)가 지난 26일 소아암협회(Cure Childhood Care) 재단에 1000달러를 기부했다.

이날 박재형 회장은 “적은 기금이지만 소아암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소아암협회 재단 아버지 담당자는 “음악회를 통한 모금활동으로 기부를 해 더 뜻깊은 것 같다. 소아

암 어린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애틀랜타한인교회음악협회는 지난해 제24회 헨젤 메시아 정기공연을 통해 자선 기금을 모금한 바 있다.

소아암은 성인보다 70% 높은 완치율을 보이지만 장기간의 치료기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윤수영 기자

마크 앤더슨 목사 초청 특별 집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오는 2월 10일(토)부터 11일(주일)까지 YWAM 캔ساس 시티 리더이자 콜투를 설립자인 마크 앤더슨 목사를 초청해 특별세미나 및 연합예배를 드린다.

마크 앤더슨 목사는 1977년 미국 전역에 걸쳐 복음전도캠페인 사역을 시작으로 1979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로 복음전도캠페인을 확장시켰다. 1991년에는 처치온더무브 인터내셔널(Church on the Move International)을 설립해 복음전도와 교회개혁사역을 했으며, 이 사역을 통해 10년간 1백만 명이 주님께 나아오기도 했다.

또 1992년 그는 예수전도단(YWAM·Youth With A Mission)에 소속되어 YWAM의 대규모 전도집회를 주관하는 YWAM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1993년에는 새로운 시대 문화를 통해 세계 각국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임팩트월드투어(IWT·Impact World Tour)를 구상했다.

오늘날 IWT는 매년 100개 이상 도시에서 진행되는 세계적인 대규모 복음전도 사역 중 하나가 됐다. 그의 복음전도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가 설립한 콜투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상명령을 함께 성취하기 위해 모인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CCC, YWAM, FTT(Finishing the Task), OM, 위클리프 성경번역, 예수영화 프로젝트 등 전 세계 1,400여 개 선교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특히 가정, 정부, 교육, 과학과 기술, 예술과 미디어, 스포츠, 비즈니스 등 7개 사회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크 앤더슨 목사는 2월 10일(토)에는 특별 세미나를, 11일 주일에는 2, 3, 4부 이중언어로 연합예배를 인도할 예정이다. 문의) 253-589-8900



이기동 목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좋은 교회 학교의 10가지 특징은?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임시당회장 심우진 목사)가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7일 교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중성교회 이기동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이번 세미나는 ‘좋은 교회학교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기동 목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어린이 예배사역팀 키즈 워십의 대표이며, 2001년 30명으로 시작한 명성교회 주일학교를 2007년 1천명이 넘는 학교로 부흥시킨 후 2013년 11월 서울 강남 청담동에 중성교회 개척을 통해 어린이 사역의 롤모델을 만들었다.

이 목사는 “좋은 교회학교의 3대요소는 ‘좋은 교사, 좋은 콘텐츠(예배와 교재),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좋은 리더십’이다”라고 소개하고 “좋은 교사들은 모이면, 아이들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교사가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대화하고 나눌 때 교회 부흥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당목사와 교사들의 아이들을 향한 마음의 크기에 따라 주일학교의 변화 속도가 좌우된다”며 “교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장 큰 성취는 학생들의 성

장에 있다. 요즘 우리 반 아이들이 자발적인 기도와 봉사에 눈을 뜨고 있는지, 기도생활과 주일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피라”며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젊은 교사와 나이든 교사간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교역자 중심의 리더십 아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동 목사가 말하는 좋은 교회학교의 10가지 특징은 △좋은 교사 1. 교사들이 모여있을 때는 어린이들을 이야기 한다. 2. 교사들에게 있어 가장 큰 성취는 학생들의 성장이다. 3. 젊은 교사와 나이든 교사간 사이가 좋다. 4. 교회학교 교역자 중심의 리더십 아래 힘을 모으려고 한다. △좋은 콘텐츠 5. 예배가 분업화 되어있지 않다. 6. 어린이들이 복음 내용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낸다. 7. 설교자에게 자주 어린이들이 다가간다. 8. 어린이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몸에서 울동이 떠나지 않는다. △좋은 리더십 9. 교회학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 10. 교회학교 리더십이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이다.

윤수영 기자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새물결)을 막고, 이단(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역으로 존중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세탁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장태원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씨니김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한현영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믿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ia.org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민수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박은중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박효우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진 초 영혼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vd.,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고 최우의 화해가 있어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 받은 자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a.com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김준식 담임목사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공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목** 담임목사
오전 11시(본성전) 매일(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전 11: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정성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골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 오전 8:00 **윤 목** 담임목사
주일2부 오후 12:45
주일3부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유년부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6: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wana 오후 6: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6: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윤대혁** 담임목사
2부 오전 9: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제플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a St., Northridge, CA 91325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323) 837-5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 C. / 엘바인 지역



이집트 무슬림들이 기도시간에 맞춰서 거리에서 기도하고 있다. ©FIM 국제선교회

논란 됐던 무슬림 기도실 설치 결국 취소 평창올림픽 기도실 논란은 일단락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강릉에 설치가 검토됐던 '기도실'이 취소됐다. 당초 이 기도실이 무슬림을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 '반대 서명' 운동이 생기는 등 반발을 샀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기도실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슬람식 발음은 꾸란)과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인 '키블라(qibla)', 에어컨과 전기 히터 등 냉난방 시설도 갖춘다고 보도했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평창동계올림픽 이슬람대책 강원도민운동본부(대표 정형만)는 온라인으로 설치가 반대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운동본부 측은 "불교인, 기독교인 등 타종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처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편향적인 조치"라며 "국민의 혈세를 특정 종교시설을 위해 투입하면 특정종교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측은 당시 "기도실 설치의 현재 계획 중인 사업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며 "또 무슬림 기도실로 알려졌지만 논의 중인 기도실은 기독교인 등 타종교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면서 기도실을 만들 경우 코란과 함께 성경도 비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도실 설치 계획이 취소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기자



총신대 학생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모습.

기뻐야 할 졸업식까지 총신대 사태 격화

학생들, 김영우 총장 등 출입 저지... 한때 경찰 출동

7일 오전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종합관에서 진행된 2017학년도 총신대 대학 및 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최근 사태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들이 김영우 총장을 비롯해 일부 재단이사들의 출입을 저지한 가운데 한때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당초 정해진 일부 순서자들은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총장이 수여해야 할 학위도 다른 이가 대신했다.

학교 정문에는 김영우 총장을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학내에도 이와 관련한 각종 대자보가 붙었고, 학위수여식이 진행된 종합관 내부에는 학생들이 차린 천막이 한 쪽을 차지했다.

총신대 총동창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총신대 총동창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사태의 중심에는 김영우 목사가 있다'며 '모교의 혼란은 김영우 목사의 사적인 탐욕의 결과'라고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신대 신대원 비대위도 학내 대자보에서 "도덕성을 상실한 김영우 씨와 재단이사들, 이들에게 부여하는 교수들"을 비판했다.

이처럼 총신 사태의 핵심에는 김영우 총장과 그에 동조하는 재단이사들이 있다. 교단(예장 합동)과 학교에선 오래 전부터 그의 장기 집권을 우려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난해 김 총장이 배임증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결정이 나기 불과 며칠 전 재단이사회가 학교법인 정관의 직위해제 및 해임 규정인 제45조 1항을 개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극에 달했다.

원래 해당 규정은 "행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

니한다"는 것으로 강제성을 띠었지만, 재단이사회는 이것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고쳤다.

이후에도 재단이사회가, "총신과 교단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정관 개정을 거듭하자 사태는 견잡을 수 없이 번졌다. 학생들은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학교 건물 일부를 점거했다. 정상적인 학사 일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총신 신대원 비대위 위원장인 과학관 전도사(신대원 3학년)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에 있다. 학생들이 수업 대신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심정을 헤아려 달라"며 "김영우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재단이사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문찬수 목사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별로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한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위원장 한철선 교수)는 최근 모임을 갖고 신대원 학생들의 졸업 요건을 규정한 내규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규는 제92조 제5항으로, 위원회는 "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단 노회가 적법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준해 주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소위 '총신대 사태'로 인해 재단이사회와 김영우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신대원 측이 이 같이 내규를 개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점점 더 총회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김영우 총장 측의 일방적인 학사행정예 합의에 사당캠퍼스 본관 4층 전산실 앞 로비를 점거하며 29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김진영 기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역할을 맡았던 짐 카비젤. ©페이스북

멜 김슨의 패션 후속작 이번엔 '부활' 주제

짐 카비젤은 다시 예수 역할로

할리우드 배우 짐 카비젤(Jim Caviezel)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 다시 돌아온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이하 패션) 이후 14년 만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룬 이번 영화에 대해 카비젤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비젤은 최근 미국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멜 김슨 감독과 손을 잡고, 상징적인 역할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매우 놀랍다. 이를 계속 주목하라"고 말했다.

이어 "멜 김슨 감독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그가 만들려는 영화는 역사상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화 '패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에 주목했다면, 후속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멜 김슨은 지난 2016년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부활은 정말 큰 주제이다. 부활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영화적으로 설득력 있고 계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 바 있다.

카비젤에 따르면 '패션'의 후속작인 이 영화는 곧 개봉할 예정이다.

한편, 2004년 개봉된 영화 '패션'은 북미 지역에서 R등급을 받은 영화들 가운데 최고의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만 약 3억 708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영화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대담하게 묘사한 장면 등으로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

강혜진 기자



닉 폴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트위터

슈퍼볼 MVP "하나님께 영광" 은퇴 후 꿈은 목회자

후보였던 닉 폴스, 팀 우승 이끌며 감동 전해

제52회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한 가운데 쿼터백으로 활약하며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은 닉 폴스(29)가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백업 출신으로 기회를 잡은 닉 폴스는 첫 슈퍼볼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폴스는 한 때 필라델피아에서 방출됐던 후보 선수군에 있었다. 애리조나 대학 출신인 폴스는 2012년 NFL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전체 88순위로 필라델피아에 지명됐다. 이후 몇몇 팀을 전전하던 그는 올 시즌 필라델피아로 돌아와 백업 쿼터백으로 시작했다.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정규 리그에서 13승 3패로 플레이오프 탑 시드를 받았으나 전문가들은 '언더독'으로 평가했다. 주전 쿼터백 카슨 웬츠의 부상으로 백업 쿼터백인 폴스가 빈 자리를 매웠기 때문이다. 폴스는 지난 시즌에 한 경기 선발 출장에 그쳤고, 올 시즌에도 3경기에만 나서는 등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카슨 웬츠의 부상으로 주전 기회를 잡은 폴스는 최고의 쿼터백 톱 브래디가 버티는 뉴잉글랜드를 무너뜨리고 MVP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폴스는 소속팀에서 쫓겨나는 아픔 속에서도 그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은

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수로서 다시 돌아와 뛰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며 "내가 다시 경기에 나선 이유는 풋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스는 "이같은 신앙으로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평생 풋볼을 할 수는 없다. 고등학교에서 목사로 일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찾아갈 학교들이 정말 많다"고 밝혔다.

이글스의 한 선수는 "폴스는 성경 말씀을 종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박학다식하다"며 "이러한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한편, 필라델피아 이글스에는 폴스 말고도 신앙이 좋은 이들이 많다. 공격수 자크 에르츠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을 드린다"고 말했으며, 폴스의 코치인 더그 페더슨은 "내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했다. 폴스의 포지션 경쟁자인 웬츠는 최근 자신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많은 팀 동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저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찬양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태학생회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EM*영어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수요기도모임 오후 7시 30분
토요새벽예배 6시 30분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Nachimban Church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죽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알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생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CI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오렌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30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제자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C)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사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m.org

새해 맞이 골드 멤버십 정수기 물병 Free

* \$290 월4회 개인 레슨
정회원 한달(무제한 볼사용)



*골프 멤버십 200불 상당의 정수기 물병 Free



물병의 6가지 특징
1. 항산화
2. 풍부한 아연
3. 알카리 밸런스
4. 작은 물 분자 클러스터
5. 열소계거
6. 음이온
건강에 필요한 것 충족

좋은 물 마시는 습관을 위해, 파이물립!
* Classy Style Bottle의 디자인
* 클래식 스타일 캡은 복유림의 감성을 더해 심플하고 기품있는 디자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 한 손에 들어오는 크리로 그립감 또한 뛰어납니다.
* 가벼운 스텐레스 재질로 휴대하기 편리하며 등산, 여행, 캠핑, 사무실, 가정 등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Classy Style Bottle의 구성
* 더블 카트리지가
* 클래식 스타일 캡은 상/하의 특별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Jacob Choi 최 제이콥 T.(310)598-0746
GOLF PROFESSIONAL

베드로가 먹어야 할 부정할 음식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식생활은 문화입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김치, 수많은 종류의 젓갈, 다양한 떡과 전, 그리고 육류와 마른 생선은 어려서부터 우리의 삶의 일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거나 타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늘 먹던 고국의 음식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생리입니다. 병마로 허약해진 한국 선교사님에게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고 쉬게 하는 것만큼 좋은 치료의 방법도 없다”고 선교의 오랜 경험을 가진 사역자가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른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명령을 따라 먹여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그렇지 못한 부정할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읍바에 기독교인을 찾아서 갔을 때, 해변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시 거주하였습니다(행 9:43). 점심식사 시간이 이른 때에,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정할 음식을 먹으라고 천사의 권면을 받습니다.

그는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정할 짐승들이 가득 담긴 보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행 10:13)는 천사의 명

령이 있었고,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행 10:14)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게 속되다 하지 말라”(행 10:15)고 합니다. 이러한 환상을 세 번 본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읍바 북방 30마일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로마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을 만나서 초청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가이사라의 집회 중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형제들 모두가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유대

인이 받은 것과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율법대로 먹고 마시지 않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베드로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정결예식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한 음식의 규정을 넘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태문화에 매여있지 말고 타문화와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문화도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되고 거룩한 것을 율법에 규정된 음식문화를 비롯한 의식주의 방식으로 구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문화를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나 로마인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해도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되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언어의 답장을, 문화의 답장을, 영육간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날로그 감성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프랑스에서 종이책이 전자책을 넘어서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2011년 이 나라에 전자책 단말기 ‘킨들’이 상륙했을 때 오프라인 서점과 종이책은 3년 내 멸종할 것이라 전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2018년 현재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비중은 3%에 불과하고 오히려 동네 책방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전자책 판매는 18.7% 줄었고 종이책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책이 단순한 지식 정보의 전달 수단 그 이상의 매체라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와 책에 묻어 나오는 잉크 냄새를 전자책이 어떻게 흉내 낼 수 있으며, 새 책을 펴기 전 책 표지를 만질 때 느껴지는 감촉을 어떻게 디지털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식당이나 셀모임 할 때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칭얼대면 어른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쥐어 줍니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전개되는 장면 변화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탐닉하며 떠들

지 않고 얽전하게 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호랑이 온다,” “순경 온다”는 말을 참 많이 했단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울음을 그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다 못해 순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손목에는 디지털 시대의 상징물인 아이워치가 차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진동하고, 운전할 때도 우회전 좌회전해야 할 때마다 흔들려주는 편리한 기계입니다. 시간도 인공위성과 연결되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칼 같이 정확한 아이워치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5분 앞당겨 맞춰 놓는 아날로그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밤늦도록 책상 앞에서 씨름할 때, 컴퓨터로 수많은 자료들을 검색하고 살펴보지만, 결국은 신학교 시절 내내 푼돈으로 사서 모은 주석 책들을 일일이 펴보고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가운데, 설교가 정리되곤 합니다. 이사 다닐 때마다 제일 골치거리가 책들이었습니다. 이삿집 센터의 구박에 따른 벌금까지 내면서 옮겨 다녔던 그 책들이 오늘도 여지 없이 제 책상에 올라 설교 준비의 친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전자책의 등장과 함께 책방뿐 아니라, 서재도 없어진다고 하지만, 아직 제 손에 킨들이 없는 이유는 종이책을 넘기는 손끝에 눈물이 있고, 책 위에 줄 그으며 굵적이는 낙서에 아날로그만 줄 수 있는 정신세계의 포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시간에 쫓겨 라면 끊는 시간도 기다릴 수 없어 스프 타 넣고 뜨거운 물 부어먹는 컵라면이 아니라, 심심한 야체에 두부 툭툭 찢아 넣고 난편 된근시간 맞춰 불 조절하며 정성껏 끓인 아내의 된장찌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와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은혜의 복음



썬니 김 목사
LA씨티교회

고린도전서 15:1-11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부활의 복음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음을 말씀하면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칭합니다. 사도라 칭할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낮아진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흐르는 곳이 어디일까 묵상해 봅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은혜를 누리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의 시작이 교회에서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야 할 방향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인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함께 길을 걷고 먹고 마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여행하고 쉬기도 하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며 슬피하며 함께 기뻐하며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으셨고 마침내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드러나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복음은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온 저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견뎌낼 수 있었던 시간들도 복음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인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매 순간 붙들고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모사랑
카탈리나 섬 / 엔세나다(멕시코)
바하 멕시코 크루즈 Carnival
5월 \$290

모든 비용 포함 (항만세/부두세/경비료 등)
기항지 선박관광 및 일대 탐방

DATE	DAY	PORT	ARRIVE	DEPART
1/22	월	롱비치 (LA)		5:30 PM
1/23	화	카타리나 섬	7:30 AM	4:30 PM
1/24	수	엔세나다 (멕시코)	8:00 AM	6:00 PM
1/25	목	전일 항해		
1/26	금	롱비치 (LA)	7:00 AM	

www.prttour.com
213. 739. 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초기 의료선교사 로제타 홀 선교일기 6권 완간

6권은 3년만에 소천한 딸 '에디스 마가렛 홀 육아일기'

“1895년 1월 18일 금요일. 오늘 아침 7시에 소중환 여자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겼다. 아기 이름은 에디스 마가렛 홀(Edith Margaret Hall)이다. 이 이름은 오래 전 아빠와 엄마가 한국에 있을 때 미리 지어놓은 것이다. ‘마가렛’은 아빠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름이고, ‘에디스’는 아빠, 엄마 둘 다 좋아하던 이름이다.”

한국교회 초창기 의료선교사로 헌신했던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의 육필일기 전 6권이 흥성사를 통해 한글로 완간됐다.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 이재철 목사) 부설 양화진 문화원(원장 김성환)에서는 2015년 9월 1권을 시작으로 2년간 다섯 권을 출간한 후, 6권 <로제타 홀 일기 6: 에디스 마가렛 홀 육아일기>를 최근 발간했다.

로제타 홀 일기 6권은 로제타 홀이 미국 뉴욕 집을 떠난 날부터 자신의 뒤를 따라 한국에 온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가 순직하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선교일기 4권과 두 자녀, 셔우드 홀과 에디스 마가렛 홀의 출생과 육아 과정을 기록한 육아일기 2권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발간된 6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에디스가 태어난 1895년 1월 18일부터 약 2년 반 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내용, 로제타 홀과 두 자녀가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출발하는 1897년 10월 27일부터 에디스의 죽음(1898년 5월 23일)과 양화진에 묻힌 아빠의 곁에 묻히는 1898년 5월 26일까지의 내용, 이후 2년간 딸의 생일과 기일을 맞아 깊은 상념을 풀어낸 1899년 1월 18일부터 1900년 5월 23일까지의 내용 등이다.

일기에 나타난 에디스는 남편을 잃은 엄마에게 위로자와 같은 존재였다. 가끔 병치레를 했지만 비교적 건강했고, 가족들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천사 같은 아이였다. 또한 로제타가 한국에서 남편에 이어 선교사 사명을 이어가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한국 귀국 과정에서 병으로 고생했고, 평양 도착 직후 심한 이질에 걸려 투병하다 1898년 5월 23일, 3년 4개월만에 하늘로 돌아갔다.

6권에는 특히 에디스의 치료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한 병상기록이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배 안에서 시작해 서울 도착 후 40여일 동안 앓은 페렴 치료, 1898년 2월 흥역



로제타 홀 일기 로제타 홀 김현수, 강현희 역 | 흥성사

치료, 죽음으로 이어진 1898년 5월 1-23일 이질 치료 등이 기록돼 있다. 증세와 처치, 그리고 엄마의 애끓는 마음이 분 단위로 나타난다.

양화진문화원 측은 “100여 년 전 한국 의료선교의 실제적 상황을 마치 역사 기록처럼 보여 주는 소중한 자료”라며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잇따라 떠나보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대신 그 상처를 가슴에 품은 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딘 선교사였다”고 평가했다.

로제타 홀은 매일 일기를 시작하면서 그날의 상황을 상징하는 성경 구절과 시 한 구절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선 “날마다 새롭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고, 그날의 상황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성경과 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환 원장은 발간사에서 “<로제타 홀 일기>는 남편인 윌리엄 홀 선교사의 순직으로 선교일기 4권이 마무리되고, 어린 딸 에디스의 죽음으로 육아일기 2권이 끝나면서 전체 분위기가 슬프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일기를 통해 로제타 홀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만날 수 있고, 한국인들을 향한 그녀의 진심어린 사랑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와 세밀한 설명을 통해 당시 상황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던 시기, 고국에서 맘껏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미지의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선교사들과 더불어 진리를 찾고 드디어 복음을 만나 자신의 생명까지 던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6권은 5권처럼 1부에 일기 원본 사진, 2부에 한글 번역문을 실었으며, 판형도 1-4권보다 작다. 1-4권은 1부에서 영인본과 우리말 번역을 실은 후 2부에 로제타 홀의 영문 일기를 활자로 옮겼다.

로제타 홀은 1865년 태어나 1890년 의료선교사로 한국을 첫 방문했다. 1892년 6월 윌리엄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4)과 서울에서 결혼했고, 윌리엄이 평양에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 로제타 홀은 여성 전문병원인 서울 보구여관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했다.

남편 윌리엄 홀은 평양에서 정일전쟁 부상자와 환자 치료에 전념하다 전염병에 걸려 1894년 11월 24일 소천한 뒤 양화진에 안장됐다. 이후 두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제타 홀은 1897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듬해 유복녀로 태어난 딸 에디스(Edith M. Hall, 1895-1898)를 아버지 곁에 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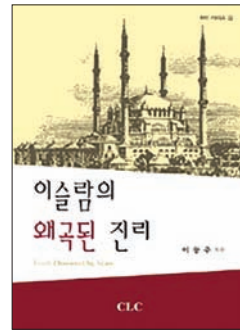
그러나 로제타 홀은 돌아가지 않고 평양에서 20여년 동안 남편을 기념하는 기호(記忽)병원과 여성을 위한 광혜여원을 설립해 여성과 어린 이들을 돌봤다.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법을 개발해 광혜여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고, 1917년부터 서울 동대문병원에서 일하면서 여성의학원을 설립하여 나중에 경성의학교로 발전시켰다. 이 학교는 훗날 고려대 의과대학으로 성장했다.

로제타 홀은 1935년 미국으로 돌아가 1951년 미국 뉴저지에서 소천했으며, 화장 후 남편이 묻힌 양화진에 합장됐다.

이대웅 기자

왜 무슬림들만의 '기도실'이 한국에 필요할까?

[서평] 이동주 박사의 이슬람 진단



이슬람의 왜곡된 진리 이동주 CLC | 319쪽

다”며 “자기 공로와 자기 속죄에 의한 행위 구원뿐이고, 그 외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만한 알라의 은총이나 사랑에 근거한 구원은 제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슬람포비아’를 경계하는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의 말처럼,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무기로 ‘성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다. ‘지하드’를 행하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저자는 “무슬림들이 다수가 되면, 원리주의자들도 그만큼 늘어날다”며 “그리고 모든 무슬림 남녀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슬람적이고, 알라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온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일을 자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촉구한다. “만일 한국교회가 현재의 안일주의, 무지주의적인 삶에서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세대들에게 무서운 형벌이 될 것이다. 현 세대에 사는 우리로 인해 차세대에 종교적 주인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꾸란이 주장하는 불신자와 개종자 살해 명령, 세계정복 명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사법계에 접근하는 무슬림들의 이유를 간파하고, 한국 미래의 이슬람화와 사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7억명의 무슬림들을 포함한 온 세상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슬림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슬림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무슬림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 참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

추천사를 쓴 김영환 박사는 “저자는 이슬람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마음으로, 무슬림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며 “무슬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죄와 탐심으로 얼룩진 구제불능의 인간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슬람의 경전과 토론하며, 성경과 복음에 대한 무슬림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책”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머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Practicing Excellence with Winning Strategy

JEONG & LIKENS는 상법, 민사, 지적재산권, 노동법, 부동산,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상법/민사

- 물품/서비스 거래 계약 위반
- 채권/채무/파산 관련 소송
-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 비즈니스 파트너 간 소송
- Non-profit 협회 관련 소송
- 장애자법(ADA) 관련 소송
- 비즈니스 관련 보험사 상대 소송

지적재산권

- 디자인 등 저작권 등록
- 의료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 영화, 음악, 방송 관련 저작권 소송
- 상표권 등록 관련 소송
-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

노동법

- 고용계약서/직원핸드북 작성
- 오버타임 등 노동법 관련 소송
- 차별, 보복 행위 관련 소송
- 부당해고 관련 소송

부동산/건설

- 부동산 매매/에스크로 관련 분쟁
- 비즈니스 매매 관련 소송
- 커머셜 리스 관련 분쟁
- 은행과 커머셜론 관련 분쟁
- 건설 관련 분쟁
- Mechanics lien/stop notice 관련 소송

- 다수의 대형 로펌 상대 소송 승소
- 미주류 대형기업을 상대로한 다수의 승소 경험
 - 1)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 **성공적 방어**
 - 2) 대형 언론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성공적 방어**
 - 3) 미 대형 군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4) 대형 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5)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설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6) 10년이 지난 전문가 업무상 과실 사건, 공소시효문제 해결하여 **승소**
- 수입 거부된 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불리한 소송 **이례적 승소로 해결**
- 지적 재산권, 부동산, 채권추심, 건설, 노동법 등 관련 다수의 상법 소송 승소
- 중소기업중앙회, 한인의류협회, 한인부동산협회 및 다수의 기업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정찬용

Loyola Law School, J.D.
Senior Articles Editor,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Published an article on Antitrust Law,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Won 2006 Annual Writing Competitio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 Management



Tel. 213.688.2001

1055 W. 7th Street, Suite 2280
Los Angeles, CA 90017



JEONG & LIKENS, L.C.
www.jeonglikens.com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로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셀라케어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겔세마네 동산 입구의 모습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화된 조각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1)

최후의 기도처 겔세마네

최후의 기도를 지켜본 올리브 나무

눈물교회에서 키드론 골짜기 아래쪽(요18:1)으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셨던 겔세마네 동산(감람원)에 이른다. 로마 천주교회의 대문을 들어서면 오래된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로마의 티토 장군은 주변을 초토화시켰고 올리브 나무 농장인 이곳도 파괴되었으리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이곳까지 파괴의 바람이 분 것은 아닌 것 같다. 어쩌든 이곳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은 수령을 헤아리기 어려운 나무들이다.

여덟 그루의 나무 중 교회 바로 옆에 심겨진 나무는 아마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았던 나무로 추정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졸지 말자. 졸면 배반한다'는 말로 새로운 믿음의 다짐을 하기도 한다.

감람산은 감람원(눅22:39)으로서 예수님의 주요한 기도 장소였다. 이곳 동산에서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고뇌의 기도를 하셨다. (마26:7, 36, 막14:44, 눅22:47, 요18:2) 겔세마네는 게이트(Geth, 올리브 기름 짜는 틀)와 세이맨(기름, Semane)이라는 뜻의 합성어이다. 곧 올리브 나무 열매의 기름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이다. 마26:36, 막14:32에서 직접 언급되어 있으며 '기름틀,' '착유기'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올리브 기름을 짜던 농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종종 이곳을 방문하셨고 마지막 기도도 이곳에서 하셨다.

으깨어진 올리브 열매와 같은 기도

이곳에서 드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마치 올리브 열매가 틀에 들어가서 완전히 으깨어져서 기름이 된 것에 비유된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름틀에 들어가셔서 으깨어져서 순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얼마나 기도가 아프셨을까 생각된다.

이곳에 있는 만국교회는 379-384년 사이에 세워진 비잔틴 교회이다. 이 교회는 614년 페르시아 침공으로 교회 일부가 파손되었고 744-745년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다. 1170년에 십자군에 의해 재건되었으나 십자군이 돌아간 후 1345년 완전 파괴되었다. 1866년 프란체스코 형제회에서 소유권을 얻었고 1919년 16개 국가의 헌금으로, 이탈리아 건축가 바를루치(Antonio Barluzzi 1884-1960)가 설계한 대로 1924년 신축됐다. 16개 국가의 헌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교회(The Church of All Nations)'라 부르기도 한다. 본래의 교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의 기도를 상징하는 고뇌의 대성전(The Basilica of the Agony)이라고 불렸다.

교회 외부에는 사복음서가 펼쳐져 있고 지붕은 12개의 돔 모양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 조각되어 있다. 교회 내부는 마지막 기도를 연상케 하기 위해 어두컴컴하게 조명

을 해놓아 기도 하시던 그 밤을 생각나게 한다. 교회 전면에는 기도하셨던 바위를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제단을 설치하였다. 널따란 이 바위에 옆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고뇌의 밤이 상기된다. 가끔은 가톨릭 미사 때문에 이 바위까지 갈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 바위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교회 전면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모습과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있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교회 밖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해 놓아 이곳에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어 간다. 제자들 중 3명은 이곳에 함께 있었고 나머지 8명은 인근 동굴에, 그리고 유다는 스승을 팔려고 성내에 들어가 흥정 중에 있었다.

세 제자들은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3번 씩이나 경고를 받았으나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였다 해도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에 졸았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본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결국 그날 밤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고난 그 이후의 시간도 대비하라는 것이다.

난 주님의 고뇌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겠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피 터지는 심정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

겔세마네 동산에 있는 만국교회의 경내에 작은 정원이 있고 여러 그루의 정말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다. 나무의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늙었는데 고목 같은 곳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 이파리와 열매를 맺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식물학자들은 최대 수령이 500년이 될 것이라 하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 그루 중 교회 옆에 붙어 있는 나무는 세 제자가 잠을 잤던 나무였다고 하는데 수령이 2000년이 넘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제자들이 이 나무에 기대고 잠을 잤던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바위에서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가 된다.

예수님의 기도는 만국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 만국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밤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놓임을 받았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그 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없었을 것이다. 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 모든 민족들도 이 마지막 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오늘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마지막 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기름들로 들어가 으깨어진 그날 밤을 말이다.

(계속)



이곳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

목사 고시 시행 공고



RPCA 총회 회원 모집

주후 2018년도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응시 자격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예정)한 자, 또는 본 총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예정)자

2.고시 과목

①신약 ②구약 ③교회사 ④교리,신조 ⑤기독교 일반상식

3.시험 일시: 2018년 3월 19일 오전 8:00 - 오후 5:00

4.시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5.제출 서류

①이력서, ②신학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③M. Div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신앙 간증문(2-3매), ⑤증명사진 2매

6.비용:(총합계 \$600)

①고시료: \$400 | ②총회 회원가입비: \$100
③지역회 회원가입비: \$100

7.접수마감일자: 2018년 3월6일 (당일 우체국 소인인정)

8.제출처: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Check Payable to: RPCA (*서류와 check를 동봉할것*)

9.목사안수식: 합격자에 한해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LA 지역회시
※ 기타문의: 총무-엘리아 김 목사(213-272-6031)

개혁장로교회 한미연합 총회는 한국지역회와 서부지역회, 남부 지역회, L.A 지역회로 구성된 교단입니다.

RPCA: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교단의 특징:

- 1) 시무년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 2) 선교 중심적 입니다.
- 3)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교사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 4) 기존 교단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친목중심형 교단입니다.

※ 타 교단에서 연령 제한에 적용되는 목회자나 교회를 교단 가입에 환영합니다.

※ 교단 가입 서류를 접수하시고, 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가입인준이 됩니다.

가입 문의 전화 : 213-272-6031 (총무:엘리아 김 목사)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RPCA)고시 위원회
위원장 : 김인철 목사 | 총무 : 엘리아 김 목사

“빈틈의 하나님? 빈틈의 다윈은 왜 못 보나?”

[인터뷰] 지적설계연구회 회장 서강대 이승엽 교수

‘창조론’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지적설계론’(Intelligent Design)이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특정한 구조나 정보는 자연선택에 따른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지적 존재’가 설계한 것이라는 게 그 주된 주장이다. 결국 누군가에 의해 창조됐다는 것인데, 조물주(造物主)를 기독교의 하나님 등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조 대신 ‘지적 설계’라는 표현을 쓴다. 국내에선 ‘창조과학’ 만큼 대중적인 않지만,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정기 심포지엄을 갖는 등 나름대로의 학술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본지는 ‘창조론 인터뷰’ 그 세 번째 주인공으로 지적설계연구회 회장인 서강대학교 이승엽 교수(기계공학·융합생명공학)를 만났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진화론은 무신론이라는 철학적 사고

-지적설계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1990년대 초 미국 버클리대 법학 교수인 필립 E. 존슨 박사가 처음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창조와 진화의 기원 논쟁을 종교와 과학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 보고, 이것이 다분히 과학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현대 생물학에서는 자연주의에 근거한 자연선택의 진화론만이 유일한 과학 이론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불합리한 논쟁의 구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윈주의 진화론에 대항하는 새로운 유신론적 과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바로 지적설계론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건, 그 태동에 일부 무신론 과학자도 참여했다는 점과 지금까지도 지적설계론은 종교적 관점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학’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지적 존재에 의한 ‘설계’를 말할 수 있나?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과학을 자연주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연주의 과학, 다시 말해 우주와 생명은 단지 물질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졌고,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기원을 물질로만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과학을 정의하면 자연선택의 진화론만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과학이론이 된다. 동시에 그것에 비판적인 연구는 과학적 증거의 유무에 상관없이 비과학이 되고, 어떠한 토론이나 반증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화론만을 유일한 과학이론으로 보기에 그 실증적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과학을 말하면서도 비판적인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다윈주의 진화론은 무신론이라는 철학적 사고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4진법’의 DNA 정보는 ‘지적 설계’의 명백한 증거”

-진화론에 어떤 허점이 있다고 보나? 그리고 설계했다는 증거는 있는가?

종(種) 내의 작은 변이가 오랜 시간 축적돼 종의 분화로 할 수 있는 ‘대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의 과학적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모든 생명체의 기원을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가령 종과 종 사이의 중간 생명체 화석이 없다거나 과거 캄브리아기 대폭발 당시 단기간에 여러 종이 출현했다는 것 등이다.

무엇보다 생명 정보가 담긴 DNA의 실체는 진화론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현대의 모든 정보는 수학의 2진법에 따라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거나 복원한다. 0과 1만으로 이뤄진 2진법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DNA 안에 담긴 ‘생명 정보’는 2진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4진법’의 디지털 코딩을 사용한다. 디지털 신호가 저장되어 있는 세포 핵 속의 염기들은 물질이지만, 4진법 디지털 정보 자체는 물질이 아니고



이승엽 교수는 지적설계연구회 회장인 동시에 개신교인이다. 그러나 지적설계론 자체는 생명의 기원 문제에 있어 지적 존재에 의한 ‘설계’ 가능성을 논증할 뿐,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없는 ‘지적 설계’의 명백한 증거다. 그야말로 확률이 기말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바로 DNA라 할 수 있다.

지난 50년간, 외계인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우주의 신호를 탐색했던 세티(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그램은 일종의 과학적인 활동으로 인정하면서도, DNA 생명 정보를 동일한 관점에서 탐구하는 연구는 왜 비과학으로 치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설계론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지적설계론은 모든 생명의 기원과 복잡성을 왜 진화론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따져, 지적 존재의 설계 가능성을 논증하는 이론이다. 그렇다고 지적설계론이 다윈주의 진화론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설계’의 증거를 찾는 것이다.

“3차원의 공간에서 2차원에 머문 진화론”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너

무 선풍리 단정 짓는 건 아닌가?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밝혀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지적설계에 대한 주된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소위 ‘빈틈의 하나님’을 지적설계가 주장한다는 것이다. 과학계가 밝히지 못한 그 ‘빈틈’을 신이나 다른 지적 존재로 비겁하게 메우려 한다는 것인데, 타당한 면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이 역시 기본적으로 자연주의 사고에 기초한 비판일 따름이다. 오히려 진화론자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다. ‘빈틈의 다윈’이라고 예컨대 생명의 기원을 ‘3차원’ 공간이라고 가정해보자. 위치를 나타내려면 3개의 좌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상이 물질과 에너지로만 되어 있는 ‘2차원’ 좌표만 고집하면,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기 어렵다. 이런 사고가 바로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으로 끼워 맞추는 ‘빈틈의 다윈’이다.

물질과 에너지로 다 설명하지 못하기에 제3의 좌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설계’라고 한다. 이렇게 자연적인 과정 이외에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3차원’ 사고로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넓히면 ‘지적 설계’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

다. 2차원에 머문 진화론적 시각을, 지적설계론자들은 흔히 ‘실재를 바라보는 잘려진 관점’이라 부른다.

“방법론적 자연주의? 그렇다면 그 한계도 인정하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논의들이 주류 과학계에서 자주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교과서만 봐도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진화론만을 소개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자연주의 과학의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화론자들이 과학을 하는데 있어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고수하는 까닭이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란 쉽게 말해, 신이나 다른 어떤 지적인 존재가 생명을 설계했을 수 있지만, 과학을 하려면 적어도 방법론적인 면에서, 과학적 증거가 불가능한 신은 배제하자는 것이다. 그런 뒤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방법론적 자연주의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 안에서 서러면 진화론만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바이오방공학을 전공하는 이 교수의 연구실에는 나노구조로 특정 색깔을 반사하는 다양한 곤충들이 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단지 과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자연주의를 택하자는 게 아주 터무니없는 것 같진 않다.

나 역시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문제는, 방법론적인 수단으로 택한 자연주의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세계관 내지 철학으로까지 제시하려 한다는 데 있다. 다른 아닌 물질주의 혹은 무신론이다. 신을 탐지할 수 없으니 과학적 방법론으로 자연주의를 제한적으로 택하고자 했으면, 그렇게 해서 도출한 결론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은 채 지적설계론자들과의 논쟁에서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이용해 논쟁의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

진화론의 아버지인 다윈도 <종의 기원>에서 그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발견한 건 갈라파고스의 핀치새, 곧 종 안에서의 변이를 기초로 한 '소진화'이며, 그것으로 종과 종 사이의 진화인 '대진화'를 추론해 낸 것일 뿐,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연속적인 작은 수정에도 생길 수 없는 복잡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보이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깨질 것'이라고 했다. 한 마디로 다윈은 다른 가능성 역시 열어둔 셈이다.

요컨대, 다윈주의 진화론도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산물일 뿐이고, 그 틀을 벗어나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지적 존재의 설계 가능성도 얼마든지 논

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는 증거는 지금도 발견된 게 없나?

생명체 종의 수를 적게는 20만 개에서 많게는 1,000만 개까지 이야기 하는데, 이 모든 종들이 오직 자연주의 관점에서 점진적인 변이를 거쳐 출현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증명돼야 할 게 너무 많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간 생명체의 화석 증거도 부족할 뿐더러 이론적인 논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에 실린 고작 몇 개 종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생명체의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타당하지 않다.

-진화론의 한계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창조과학과도 일부는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설계와 창조과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창조과학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에 의한 생명 창조와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인 사실임을 변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진화론을 비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생명체의 창조를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연구해 대중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지적설계론은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원 논쟁에 있어, 진화론에 대한 학술적인 '대안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를 과학계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만들어보자고 한 시도였다. 창조

과학과 달리 성경의 하나님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탐지 가능한 생명 구조의 복잡성이나 생명 정보를 우선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선택에 대비되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나 '복잡 특수 정보'를 설계의 증거로 제시하고 학술적으로만 논쟁해 왔다. 이 점에서 창조과학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이른바 '유신진화론'은 어떻게 보나?

사실 미국에서 지적설계론이 출현하면서 가장 많이 논쟁했던 그룹이 바로 유신진화론자들이다. 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진화론을

보는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만약 진화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면 아마 나를 비롯해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신진화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100% 과학적인 이유에서다.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다윈주의 진화론으로만 모든 생명의 기원과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그것에 너무 많은 허점들이 있다.

국내 대표적인 유신진화론 과학자는 아마 서울대 우종학 교수일 것이다. 한동안 주로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 분야의 논의를 이끌어 왔는데, 우종학 교수가 여기에 참여하면서는 대중에게도 알려졌다. 그 점에 있어선 우 교수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그가 창조과학, 그 중에서도 '젊은 지구론'을 유독 공격하는 모습에 대해선 유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신진화론 그룹과는 달리 우 교수는 국내 지적설계론자들과의 토론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다. 과거 두 차례 그에게 지적설계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와 줄 것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우리 모임이 아니라면, 그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신학과 과학의 대화(과신대) 모임에 나를 초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적설계론은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설계론 자체에는 종교적 동기가 없다고 했는데, 교수님의 종교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나?

개신교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지적설계론은 설계자가 기독교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신, 심지어 외계인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신앙적 갈등은 없나?

지적설계론은 생명 기원에 대한 유신론적 과학 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지, 특정한 종교를 설파하는 담론이 아니다. 간혹 지적설계론이 범신론을 지지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오해다. 지적설계론은 결코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설계자가 있다는 논리적 귀결을 설득력 있게 보이게 할 뿐이다.

-우주와 지구의 연대 문제에 있어 지적설계론은 어떤 입장인가?

그 분야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지적설계론의 주된 초점은 생명의 기원, 즉 생물학 쪽에 있다. 연대와 관련해서 고생대 캄브리아기 당시 일어난 대폭발로 인해 다양한 종의 생물이 출현했다는 것, 그리고 우주의 미세조정(fine tuning)을 설계론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주류 과학계의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적설계론자들의 대부분이 '오랜 지구'를 지지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적설계 그룹의 공식 입장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지적설계론자 중에는 젊은 지구론자도 있다. 김진영 기자



이승엽 교수는 "교과서에 실린 고작 몇 개 종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생명체의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2018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세미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대하 드라마를 보듯, 5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성경일독의 효과를 얻게될 것입니다.

OC 지역(제 17차):
2018년 2월 10일(토) 9:00am-4:30pm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 / 714-591-7050
(214 N. Highland Ave., Fullerton, CA 92832)

밸리 지역(제 18차):
2018년 2월 17일(토) 9:00am-4:30pm
ANC 은누리교회(M800) / 818-834-7000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LA 지역(제 19차):
2018년 2월 24일(토) 9:00am-4:30pm
LA 비전교회 2층(본당) / 213-386-9191
(520 S. La Fayette Park Pl., LA, CA 90057)

접수: 8:30-9:00am
회비: \$10(점심, 다과)
교재: \$10

문의:
윤승철 집사(818-402-3391, jyun1097@yahoo.com)
김관수 목사(818-383-7926, dkkim523@gmail.com)

후원: CHTV 56.9, 크리스천 헤럴드, 국민일보, 기독교일보
성시순례 전문 "투어 프리미어"



강사: 김관수 목사(ANC 은누리교회 성경교육 전문사역자)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중, 풀러선교대학원
ThM(선교신학 석사), 풀러선교대학원
MDiv(목회학 석사), 웨드민스터대학
연세대학원 전기공학과 중퇴(도미)



넘치는 복음으로 이웃에게
OVERFLOW: MORE GOSPEL IN OUR NEIGHBORH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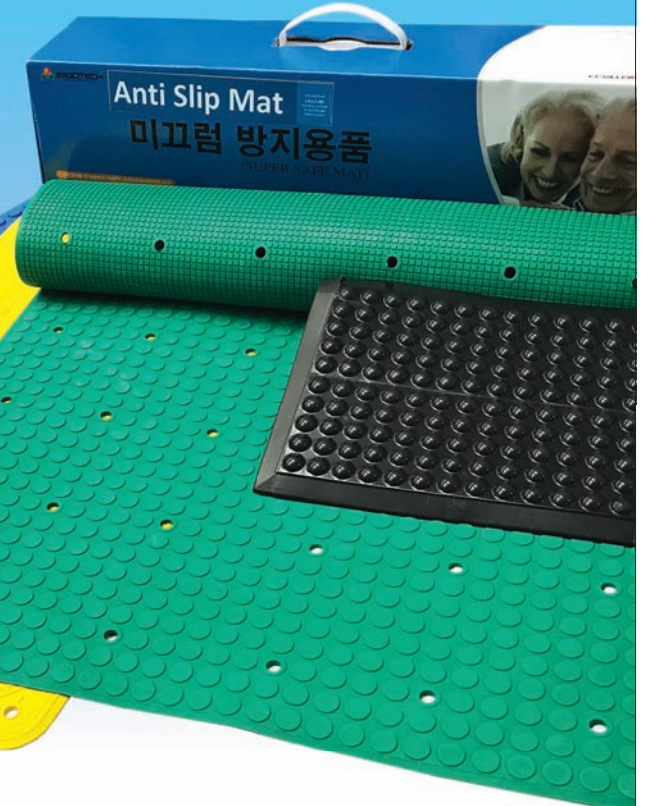
피로야 가라!

피로방지매트

(Prevent Fatigue 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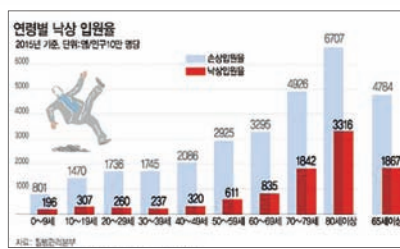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70%이상 피로 감소, 피로방지,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작업안전 증대, 미끄럼 방지, 충격흡수, 생산성증대, 노종자 보호, 관절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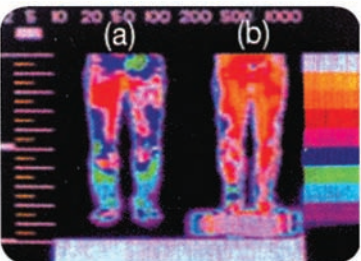
목사님!
목회자
특별한인 혜택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 미끄럼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열상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 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 (a)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경우
청색과 녹색이 종아리에 몰려 분포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 원활하지 않은 근육활동과 혈액순환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 한 경우
붉고 노란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로방지 매트의 독특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탄력적 특성과 재질로 인하여 근육 및 혈액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국판매기념 특별세일

<p>E- MAT</p>  <p>피로방지용 사이즈 3ft + 2ft \$123 +tax \$176 30% Off</p> <p>* 사이즈와 모양을 설치 장소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p>	<p>SAFE KOREA MAT</p>  <p>케어프리매트 (Safe Korea Mat) 사이즈 80cm+40cm \$75 \$60 +tax</p>	<p>NEW SUPER SAFE MAT</p>  <p>슈퍼케어프리매트 (Super Safe Mat) 사이즈 92cm+42cm \$90 \$72 +tax</p>
	<p>SAFE MAT</p>  <p>사이즈 80cm+40cm \$95 \$76 +tax</p>	<p>SUPER SAFE MAT</p>  <p>사이즈 3ft + 2ft \$145 \$116 +tax</p>

약국, 식당 주방, 가정집, 일반 소매점, 웨얼하우스, 메뉴팩처, 디자인 하우스 등 서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 설치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